

보도해명자료 (‘11. 6. 7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최영희 “박영준, 해외자원개발 특혜 의혹”
보도에 대한 해명

1. 기사 요지 (‘11.6.7, 연합뉴스, 서울경제, 파이낸셜뉴스 등)

-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친여 성향의 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신생 회사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벌이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① 최 의원은 “작년 5월 설립된 자원개발업체 KMDC가 올해 1월 미얀마 해상 유전광구 4곳에 대한 개발탐사권을 획득한 배경에는 박 전 차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”고 주장

⇒ (지정부 입장) KMDC의 미얀마 해상 4개 유전광구 획득은 KMDC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서 박 전 차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* KMDC는 미얀마 현지 E&P 기업인 BOC(Brilliant Oil Corporation)사와 공동으로 광구 확보 가능성을 준비

- ② 최 의원은 “KMDC가 광구개발 신청을 내기 4개월 전인 작년 6월 국무차장이던 박 전 차관은 한나라당 5명, KMDC 이모 회장과 함께 미얀마를 다녀왔다”면서 “이 회장은 이 대통령 당선에 앞장선 단체인 선진국민연대의 대표”라고 말함

⇒ 박영준 전 차관은 “작년 6월에 미얀마로 출장을 간 적이 없다. 한나라당 의원 5명, 이모 회장과는 같이 해외출장을 간 적이

없다. 또한, 이모 회장은 선진국민연대 대표도 회원도 아니다”라고 전해왔음. 참고로 박영준 차관은 2010.1월(국무차장 시절)과 2010.12월에 미얀마를 방문하였음

- ③ 최 의원은 “자원개발 경험이 전무한 KMDC가 가스공사 등 극히 일부 국내업체 만이 개척한 미얀마 자원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미얀마 측과 새만금 방조제 기술 제공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박 전 차관이 특혜를 줬던 게 아니냐”고 따졌다.

⇒ (지정부 입장) KMDC의 미얀마 해상 4개 유전광구 획득은 새만금 방조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, 박 전 차관이 특혜를 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 전민영 과장(02-2110-5530)
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 정기훈 사무관(02-2110-5528)